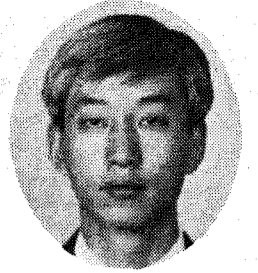


# 뇌졸중의 원인과 진단



희·지·희  
〈연세의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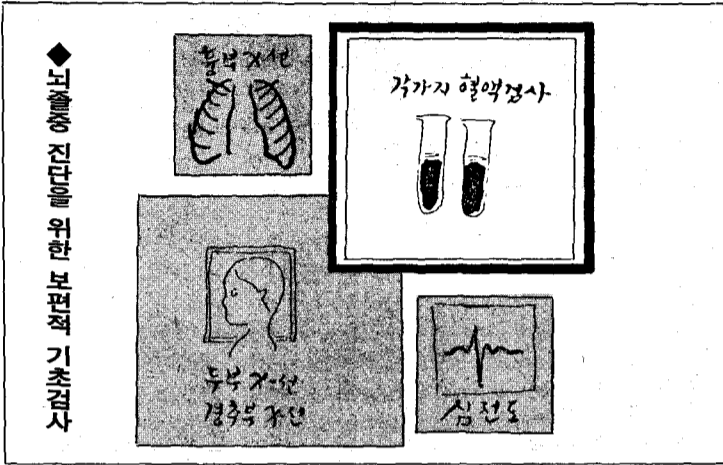
「오랫동안 고혈압을 앓아 오던 어떤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게 되자 그 가족들은 한의원에 들러 침을 맞게 한 후 오후쯤 병원 응급실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 의사가 할머니를 진찰한후 “뇌졸중입니다”라고 말하자 그 가족은 대뜸 “중풍 아닌가? 한의사는 중풍이라고 하는데”라고 되묻는다. 이러한 광경은 병원 응급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일반인들에게 중풍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뇌졸중이라는 병명은 아직 낯설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뇌졸중과 중풍은 같은 말로 어떤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병명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뇌혈관 질환은 뇌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흔히 뇌혈관 질환의 결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장애가 온 경우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중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뇌경색증이라 하고 터지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이들 모두가 뇌졸중에 포함되는 말이고 경우에 따라 허혈성 뇌졸중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한다. 뇌경색증은 또한 혈관이 동맥경화증 등에 의해 점점 좁아져서 막히는 뇌혈전증과 심장과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덩어리(색전) 같은 것이 혈액을 타고 지나다 혈관이 좁아지는 곳에서 막혀 버리는 뇌색전증으로 나누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뇌의 깊숙한 곳을 먹여 살리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막히는 경우 꼭 뇌에 작은 구멍이 난 것 같다고 하여 소공성 뇌경색증이라고 한다. 뇌출

혈은 뇌안의 혈관이 터져서 오는 뇌실질내 출혈과 뇌를 싸고 있는 막과 뇌사이에 출혈이 되는 지주막하 출혈로 나뉜다. 뇌실질내 출혈은 보통 고혈압 환자에서 발생하고 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이 파리와 같이 부풀어 있다

가 얇아진 동맥벽이 터지거나 동맥과 정맥의 기형을 가지고 있던 환자에서 발생한다.

### 뇌졸중의 원인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부르는 많은 병들이나 그릇된 생활습관 등이 뇌혈관에 이상을 가져오게 하고 이러한 이상으로 인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어떻게 보면 뇌졸중은 여러가지 성인병이나 잘못된 생활습관의 합병증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뇌졸중이라는 병에 걸리는 것일까? 의사들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원인이 되는 병들을 뇌졸중의 위험인자라고 부르는데 현재까지 여러가지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다(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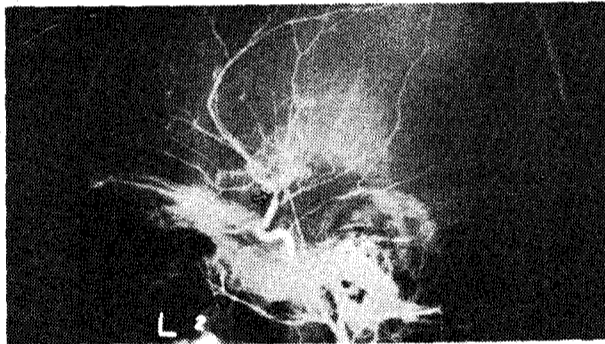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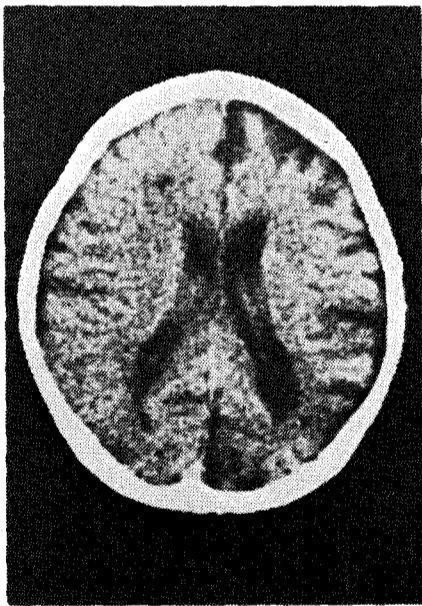
뇌졸중은 대부분 중년 또는 노인층에서 생기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위험성도 커진다. 또한 동양인의 경우 백인보다 심장의 관상

동맥질환은 적은 반면 뇌졸중은 더 잘 생긴다. 또한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은 커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으로 뇌졸중 환자의 약 80%가 고혈압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 고혈압은 뇌경색증 및 뇌출혈 모두를 일으킬 수 있는데 확장기 및 이완기 혈압 모두가 관계되고 혈압이 높을수록 발병할 위험이 커진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4~5배, 경계성 고혈압 환자의 경우도 2~2.5배 정도 뇌경색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정상인보다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이 2배 정도 높다. 여러가지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뇌경색의 위험이 증가하는데 특히 심근경색, 심방세동, 심장 판막증, 율혈성 심부전과 심전도 검사상의 좌심실 비대 등이 이에 속한다.

생활양식 중에는 흡연이 특히 중요하다. 흡연은 심근경색 뿐만 아니라 뇌경색, 뇌실질내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출혈성 뇌졸중이 발병할 위험이 2.5배 이상 높고 특히 흡연량이 많을수록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이 이외에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한 적이 있는 여자의 경우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2배 이상 커진다.

〈8면으로 계속〉

## 뇌졸중환자의 약 80%가 고혈압 병력있어 언어장애, 운동장애가 대표적 증상



◇〈사진 1〉 뇌졸중의 특수한 형태인 모야모야 병의 환자에서의 뇌전산화단층촬영소견 및 뇌혈관 촬영 소견이다. 좌측의 뇌전산화 단층촬영소견에서는 우측 후두엽 및 우측 두정엽과 후두엽의 경계부의 저음영이 관찰되고 전반적인 파질의 위축 소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선천적인 혈관이상에 의한 뇌혈관질환중의 어떤형태는 임상소견 및 신경학적 검사외에 뇌혈관 촬영을 통하여만 진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한일약품**

# 당뇨성 신경장애

## 새로운 치료제로 입증된 비타메진

**이런 증상일 경우가 당뇨성 신경장애입니다.**

- 혈액중의 고혈당은 신경조직을 파괴하여
- 팔다리의 무력감증, 저림, 근육통이 나타납니다.
- 시력이 떨어지며 물체가 이중으로 보인다.
- 발기부전과 배뇨가 곤란하다.
- 이와같은 당뇨성신경장애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당뇨로 손상된 신경조직이 살아납니다**

대량의 비타민 B群은 인슐린의 생성 및 활성을 촉진하고, 신경세포의 부활작용도 우수하여 최근 당뇨성 신경장애, 망막증, 신증, 기타소모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제로 그약효가 입증되었습니다.

- 손상된 신경조직을 조속히 재생시켜줍니다.
- 소염진통제가 아니면서 진통효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고단위 약효도 다릅니다.**

벤포티아민	69.15mg
엽산 피리독신	50mg
시아노코발라민	500µg

당뇨성신경장애, 신경통, 기타소모성질환 치료제

**비타메진**

표준소매가격 50mg, 100캡셀 22,000원

100-60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8호 (02)464-0861  
비타메진 (교) 585, 글루코메타 GX (교) 에임스실  
지방 : 대구영업소 752-5544, 대전영업소 253-9597, 9598, 광주영업소 223-6667-6668

## 10만원代 혈당측정기

혈당측정기의 세계적 권위 미국의 에임스가 사용이 더욱 간편해진 글루코메타 GX를 선보입니다.

고기능 저가격의 글루코메타GX

1. 하나의 버튼으로 조작이 간편.
2. 광전전사법에 의한 완벽한 측정.
3. 10회분을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
4. 반영구적인 수명.
5. 휴대가 간편한 담배갑 크기.
6. 기능과 성능에서 비교될수 없는 가격 16만원.

**글루코메타GX**

비타메진과 글루코메타GX에 대한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7면에서 계속>

### 뇌졸중의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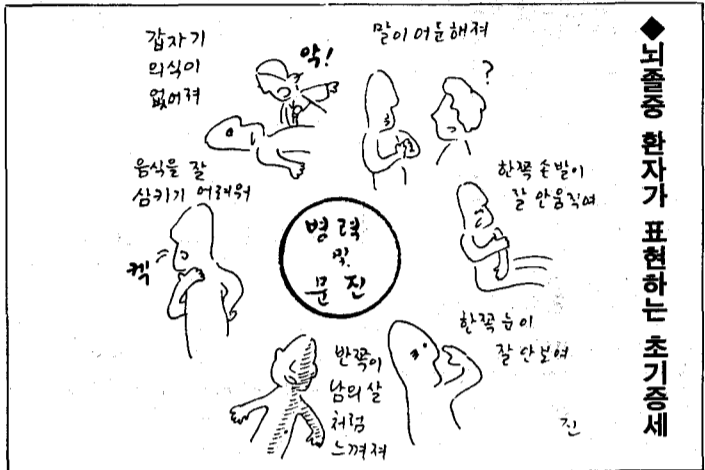
뇌졸중의 진단은 그리 어렵지 않다. 뇌는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보고, 느끼는 등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센터와 같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 생겨서 뇌에 이상이 오게 되면 거의 모든 경우 환자나 주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장애가 오기 마련이다. 즉, 한쪽 팔다리의 마비가 오거나, 말을 못한다던가, 한쪽 팔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이상하던가,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것같이 어지럽다던가, 눈이 잘 안 보인다던가 또는 들로 보인다던가 하는 식의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의식장애가 나타나 옆에서 아무리 깨워도 깨어나지 못하는 혼수 상태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뇌출혈의 경우는 두통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는 두통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지주막하 출혈 때의 두통은 매우 심해서 보통 환자들이 호소하는 갑자기 「벼락치듯이」 또는 「뿔로 뒤통수를 꿰어 맞은 듯이」 아프다고 하며 평생 처음 경험해 보는 심한 두통을 경험하게 된다. 뇌졸중의 증상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러한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에서 뇌의 다른 병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흔히 뇌졸중의 증상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와사풍」이라고 불리워지는 말초성 안면마비로 이때는 안면마비외에 다른 곳의 마비는 없고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며 이마의 주름도 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뇌졸중과는 관계없는 증상이다. 또한 뒷머리가 빠근하거나 양쪽 손발이 저린 증상 등도 뇌졸중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일단 뇌졸중이 발병하여 병원에 오게 되면 여러가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 크게 뇌졸중 자체의 진단을 위한 검사와 그 원인 질환을 비롯한

전신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검사로 나눌 수 있다. 뇌졸중 자체에 대한 검사로는 보통 CT 촬영이라고 하는 뇌전산화단층 촬영과 MRI라고 하는 자기공명 전산화단층 촬영이 있는데 이러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쉽게 뇌졸중의 종류 및 위치와 크기 등을 알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혈관의 막힌 상태나 기형등을 알아보기 위해 혈관을 통해 가는 관을 뇌혈관에 집어 넣어 뇌혈관이 잘보이게끔 하는 약을 주사하여 뇌혈관을 직접 촬영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도플러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뇌혈관의 상태를 알아볼 수도 있는데 정확도에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뇌졸중의 원인을 알아내야 하는 이유는 뇌졸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뇌졸중을 진단하는 것은 주로 의사의 할 일이지만 그 원인을 알아내고 적절한 사전 조치를 통해 이를 예방하는 것은 의사와 일반인 또는 환자가 함께 해나가야 할 일이다. 어떤 병이던지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특히 뇌졸중은 일단 발병하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알고 평소에 적절히 대처해나가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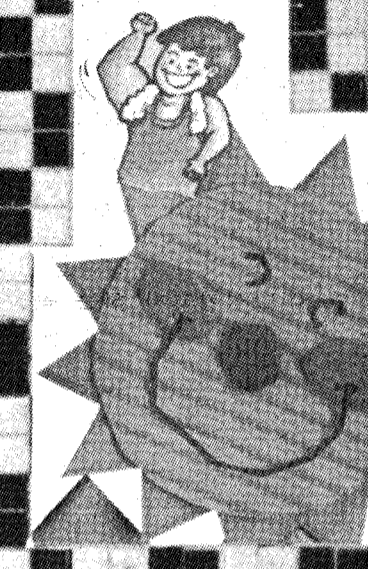


### 표. 뇌졸중의 위험인자

- 가. 생활양식
1. 흡연
  2. 음주
  3. 약물 남용
  4. 나이
  5. 성별
  6. 인종
  7. 가족력
  8. 경우 피임약 복용
- 나. 질병
1. 고혈압
  2. 심장질환
  3. 일과성 뇌허혈증
  4. 헤마토크리트 증가
  5. 당뇨병
  6. 섬유소원 농도 증가
  7. 편두통

<끝>

## 뇌졸중 치료와 예방



### 1. 허혈성 뇌졸중의 치료

#### 1) 일반적 처치

a) 뇌졸중 환자의 후송 및 입원  
급성 뇌혈관 질환에 의한 뇌신경의 손상은 수시간 이내에 진행되며, 효과적인 치료는 이기간에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는 발병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뇌졸중의 초기 증세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및 계몽이 긴요하다. 흔한 뇌졸중의 증세로는 반신 팔 다리의 마비, 감각장애, 의식의 혼미, 발음장애, 보행장애, 어지럼증, 시

력 및 시야 장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세가 갑작스럽게 오거나 수일간 진행된다. 또한 뇌졸중의 증세는 흔히 수시간 내지 수일간 악화되거나 재발하므로(뇌졸중 증세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여 당분간 치료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b) 고혈압 치료

뇌졸중의 초기에 환자의 혈압이 몹시 상승되어 있는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생체내의 보상작용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혈압상승은 대체로 수일 내에 정상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급성기에 혈압을 하강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대체로 초기에 신경학적 징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혈압하강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조심스럽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미에서는 혈압이 아주 높지(220/130 mmHg)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 c) 뇌부종 치료

심한 뇌졸중에 의해 뇌부종 상태가 의심될 때 만니톨, 글리세롤 등을 쓰거나 과호흡을 유도함으로써 뇌압 강하 치료를 한다. 종래 자주 사용하던 스테로이드는 사용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

#### d) 기타

많은 환자에서 연하곤란, 대·소변실금, 욕창 등의 문제가 생기며 이들은 영양실조, 폐렴, 요로 감염 등의 중요한 합병증을 유발시킨다. 필요에 따라 레빈 튜브, 요로 카테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욕창의 방지를 위해 빈번히 자세의 변화를 시켜주어야 한다. 저혈당, 고혈당, 발열 등은 뇌손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조절해 주어야 한다. 급성기가 지났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빨리 물리치료를 시작하여 관절경직 등을 예방해 주어야 한다. 구미의 경우, 팔 다리 등의 정맥, 그리고 폐 등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9면으로 계속>

# 700국 음성정보(각 성인병 분야 총망라) 안내

◎본협회에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성인병예방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사업으로 음성정보를 개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인병질환의 예방 및 치료관리대책 등을 전문학자로 하여금 직접 녹취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성인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700국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종목(병류)

대표전화 700-6939

- |          |             |                      |               |                   |
|----------|-------------|----------------------|---------------|-------------------|
| 1. 고혈압   | 10. 유암(유방암) | 19. 간경변증             | 26. 기관지천식     | 35. 소아폐질환         |
| 2. 당뇨병   | 11. 혈액암     | 20. 류마로이드 및 만성퇴행성관절염 | 27. 폐기종       | 36. 성인병운동요법       |
| 3. 동맥경화증 | 12. 대장암·직장암 | 21. 골조송증(골다공증)       | 28. 기관지확장증    | 37. 성인병 식사요법      |
| 4. 심장병   | 13. 췌장암     | 22. 비만증              | 29. 간질성폐질환    | 38. 노인성질환         |
| 5. 암 개요  | 14. 후두암     | 23. 소화성궤양            | 30. 갱년기정신신경장애 | (순환기·치매·신경계·우울증)  |
| 6. 위암    | 15. 암치료법    | 24. 기능성 위장장애         | 31. 소아고혈압     | 39. 비뇨기계질환        |
| 7. 간암    | 16. 갑상선질환   | (과민성 대장증후군 포함)       | 32. 소아당뇨병     | (전립선염·전립선비대증·방광염) |
| 8. 자궁암   | 17. 뇌졸중     | 25. 기관지염             | 33. 소아정신장애    |                   |
| 9. 폐암    | 18. 만성신장병   |                      | 34. 소아비만증     |                   |

※각 질환별 일부와 정보제공이 안되는 것은 단시일내에 제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